PEOPLE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전남산림연구원
전국 무궁화 품평회서 대상

전남도산림연구원은 17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광복 제80주년 기념 '2025년도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를 대표해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무궁화 전국 축제에 70점의 분화를 출품, 전국의 시·도가 참여한 단체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 부문에서 함평의 박민숙 씨와 해남의 김종관 씨가 산림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2020년 은상, 2021년 은상, 2022년 대상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대상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전국 최고의 무궁화분화 육성과 품종관리 실력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국민 평가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무궁화 품종도 적극 육성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HD현대삼호
사우 자녀 여름캠프 '눈길'

HD현대삼호가 한가족 문화 증진을 위한 사우 자녀 여름캠프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HD현대삼호 사우 자녀 여름캠프'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워터파크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캠프 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참가 학생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끌어올렸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일하는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여름 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고흥, 소외계층 폭염 극복 온정
건협 광주전남지부, 성금 100만원

고흥군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원장 김동규)로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탁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냉방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바람 호스피스지원센터, 소원성취 프로그램

"집에 온다는 것이 눈물 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80대 환자 자택 방문 즐거운 만남
가족과 4시간 동안 가족사진 촬영

"늘 있던 집이었는데,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바람(HOPE) 호스피스지원센터(센터장 임영창 박사)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80대 환자인 김모씨의 마지막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원성취 프로그램은 '늘 있던 집에 들어오니 눈물이 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택 방문을 신청한 80대 환자는 이날 오전 엠블렌스로 전남제일요양병원에서 광주 학동에 있는 아파트 자택으로 이동,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의료진, 바람 호스피스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택을 찾은 환자는 늘 앉아 지내던 소파에 눕자 "일상이 행복이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슬하에 아들 1명과 딸 3명을 두고 있으며, 그가 자택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함께 모여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바람(HOPE) 호스피스지원센터는 16일 80대 환자인 김모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집을 떠나 다시 병원으로 출발 하기 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

그는 오후까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늘 밖을 바라봤던 자리에 앉아 바깥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찍는 이번 사진이 마지막 사진일 수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집을 떠나 입원한 병원으로 이동 하기 전 가족들은 아버지인 김씨를 배웅했고, 그는 감동을 가슴에 가득 담고 병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환자 가족들은 "바람 호스피스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온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바람(HOPE) 의료복지회는 7년 전 설립됐으며, 마지막 소원 성취 프로그램과 영적돌봄 프로그램, 웰다잉 강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국에서 200여명 회원들이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소원성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임영창 회장은 "마지막 소원성취 프로그램은 주로 말기 암 환자분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움직일 수 있고, 의식이 있으실 때 늦지 않는 시기에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와상환자 중에도 여생의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되면 너무 늦지 않게 마지막 소원성취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광주시, 폭우 속 이웃생명 구한 '의로운 시민' 표창

시민·소방관 등 7명…강기정 시장 "용기 있는 행동, 모두의 귀감"

광주시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시민과 소방관 7명을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 지난 13일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로운 시민'은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문종준씨와 최원일·이강준 소방관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광주지역에 하루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되는 등 위험 속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이날 오후 5시경 동구 소태동에서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 씨는 빗물에 휩쓸려 아스콘 틈에 낀 노인을 구출했다.

두 다리가 끼여 얼굴까지 물에 잠겨 있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판자로 물길을 막아 숨 쉴 공간을 만들고, 공업용 도구를 이용해 물살을 막으며 모두 힘을 합쳐 20여 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노인을 구조했다.

같은 시각, 문종준 씨는 북구 신안동 침수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80대 할머니 세 명을 구조했다. 그는 급류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도 재활용품이 가득한 집을 통로로 확보하고, 가스 배관을 잡고 물살을 헤쳐 이웃 할머니들을 업고 나왔다.

소방공무원들의 활약도 빛났다.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최원일·이강준 소방장은 허리까지 차오른 급류 속에서 차량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했다. 로프를 붙잡고 물속을 헤치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중년여성을 구조한 뒤 다음 구조 활동까지 새벽까지 이어갔다. 두 소방관은 다수의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구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광주정신이 살아 있는 감동의 실천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양동민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수연, 이장복씨, 강기정 시장, 최승일씨.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산세무서는 최근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동산동 일대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국세청·광산세무서 수해 농가 복구 봉사활동

지역특산물 방울토마토 사전 구매·자매결연 협약도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산세무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동산동 일대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광주국세청장과 강병수 광산세무서장 등 자원봉사단 60여 명이 참여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내부의 폐작물과 유입된 토사 제거, 시설물 청소 등을 진행했다. 또 광주국세청은 수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광산구 평동(동장 김충신), 평동농협(조합장 최삼규)과 지역특산물인 방울토마토 사전 구매 및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일손 돕기가 신속한 복구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수해 지역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에너지의 날' 탄소중립 캠페인

포인트제도 참여…실내 적정온도 유지·계단 이용 등 생활화

㈜광주신세계가 에너지의 날(22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1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감축하면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연 2회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광주신세계는 평소에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점심 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하기를 비롯해 실내 적정온도(26도) 유지하기,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사용하기,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캠페인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 직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 됐던 탄소업수다 챌린지 시즌2도 진행한다. 텀블러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했던 지난 챌린지에 이어 이번에는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하기, 빨래 자연건조하기 등을 실천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임직원들에게 무료 커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동구, 세계양궁대회 '시민 서포터즈' 교육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동구 서포터즈 2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캠페인,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인형만들기 체험 지난 16일 광주 서구 광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나만의 인형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